



세례, 회개와 은총의 시간

차분한 연중시기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주가 지났지만 전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성탄 시기의 여운이 매우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느님은 사람이 되신 당신 아들을 통해 무력한 아기의 모습으로(주님 공현 대축일), 참회하는 죄인의 모습으로(주님 세례 축일), 그리고 오늘 하느님과 하느님의 백성이 하늘에서 함께 벌이게 될 영원한 혼인 잔치의 참된 주인공의 모습으로(카나 혼인 잔치) 당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나의 혼인 잔치에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도 참석하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눈치채신 성모님이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때’가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지만 성모님은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하고 일꾼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모님이 그저 오지랖 넓은 여느 여인이라고 생각하면 커다란 오해입니다. 정작 그 두렵고 고통스러운 ‘때’가 왔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키는 몇 안 되는 사람들 가운데 한 분이셨습니다.(요한 19,25-27) 성모님의 말씀은, 이집트 땅에 큰 기근이 들었을 때 파라오가 빵을 달라고 부르짖던 백성에게 “요셉에게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창 41,55)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게 합니다. 성모님에게서 여왕의 힘이 느껴지지 않는지요? 예수님은 일꾼들에게 그 집에 있던 물독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시고, 다 채워진 후에는 그 물을 과방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100 리터쯤 들어가는 물독 여섯이 모두 맛있는 포도주로 변했으니 잔치는 이제 얼마든지 흥겹게 계속될 것입니다. 카나의 기적은 어머니의 청에 못 이겨 계획 없이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포도주의 기적은 오천 명을 먹이신 빵의 기적(요한 6,1-15)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때’(요한 17,1)가 오면 빵과 포도주를 당신의 살과 피가 되게 하시어 영원한 생명의 음식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세상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때’는 이렇게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카나 혼인 잔치의 신랑은 술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 잔치를 망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과 하느님의 백성이 영원히 벌이게 될 하늘의 혼인 잔치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세례자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저 신랑의 친구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듯이(요한 3,28 참조), 하늘의 혼인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새 신랑이신 예수님은 카나의 기적을 통해 얼마든지 ‘좋은 술’을 넘치도록 준비하여 영원한 잔치를 벌이는 분임을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즐거운 혼인 잔치를 더욱 흥겹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들은 모두 하느님 앞에 ‘물’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물처럼 맛있는 우리를 향기롭고 맛있는 ‘술’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하찮은 것이라 해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봉헌함으로써 주님의 혼인 잔치를 더욱 흥겹게 하고,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천상의 술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김영국 요셉 신부 /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사무총장

† 공지사항

- 2013 년 사목위원 투표 안내
 - 투표 일시: 2 월 2 일 미사 직후
 - 후보: 기본적으로 모든 성인 신자를 대상, 제외 적용 (각 구역별 확인)
 - 후보자 명단 확인 및 안내: 1 월 26 일 미사
- 유아세례 안내
 - 2 월 9 일 미사와 함께 세례식 진행
- 1 월 공동체 식사는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 소식



< 성가대 모집 >

성가대에서 성가대원과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노래를 좋아하시거나 악기(피아노, 기타, 바이올린, 첼로, 관악기 등등)를 연주하실 수 있는 교우분이면 누구나 환영입니다. 특별히 피아노 반주자를 “매우 절실하게” 찾고 있습니다 (현재 반주자 두 분이 계시는데, 이번 학기중으로 한분이 귀국하실 예정입니다). 매주 미사 한시간 전에 모여서 (4:00 - 4:55) 같이 연습합니다. 관심 있는 교우분들께서는 지휘자 한영주리드비나 (lidwinahan@gmail.com) 에게 문의하시거나, 미사전후에 지하 Music Room 에 직접 들려주셔도 됩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환영합니다 >

- 1) 김현 유스티노 형제님, 김명진 안젤라 자매님 부부 (1 구역)
 - urban planning, special education 전공
- 2) 허주영 베로니카 자매님 (대학원 구역)
 - 사회학 박사과정 교환 학생
- 3) 이종민 마리아 고레퍼 자매님 (학부 구역)
 - 통계학 전공
- 4) 신지호 멜라니아 자매님 (학부 구역)
 - 심리학 전공
- 5) 신선호 레지나 자매님 (학부 구역)